KIA '최정민' 트레이드 이유 온몸으로 증명

지난 4월 13일 1군 승격 버나디나 부상 공백 메꿔 외야 주축으로 2루수까지

KIA 전천후 플레이어 최정민(29)이 눈부신 봄을 보내고 있다.

최정민은 최근 연승의 주역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1군 승격 이후 주로 대수비와 대주자 백업요원으로 나섰다. 그러다 로저 버나디나가 허벅지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자 주전으로 출전했다. 버나디나의 공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활약도가 대단하다.

지난 18일 SK와의 광주경기부터 선발출전하더니 4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터트리고 있다. 4경기에서 16타수 7안타, 타율 4할3푼8리, 3타점, 5득점의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가운데 솔로홈런도 2개 날리는 장타력도 과시하고 있다. 왜 2군에만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의 활약이다.

2번타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는 최정민의 활약으로 타선의 활력이 넘치고 있다. 특히 빠른 발을 이용한 기습번트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가 기습번트를 대비를 하는데도 성공시키거나 실책을 유발하고 있다. 1루주자로 안타가 터지면 3루까지 질주하는 투베이스 능력도 돋보였다.

원래는 2루수였다. 그러나 올해 외야수까지 겸업하고 있다. 송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SK 시절 외야수 수업을 받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외야수로 나서고 있다. 중견수 수비범위도 넓고 타구 판단력도 합격점을 받았다. 외야를 주축으로 2루수까지 출전하는 등 전천후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다.

눈빛이 살아있다. 버나디나의 이탈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근성이 넘친다. 모든 플레이가 악착같다. 절박한 심정으로 야구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정민의 플레이에 김기태 감독도 흐뭇해하고 있다. 온몸으로 트레이드의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최정민은 작년 김민식, 이명기, 노관현과 함께 SK에서 이적했다. SK 시절 당한 부상을 치료하느라 작년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김민식과는 마산중-마산고 동기동창이다. 절친중의 절친이다. 작년 김민식이 주전포수로 정규리그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자 축하하면서도 부러워했다.

절친의 활약을 보면서 가을캠프에서 "반드시 2018년에는 1군에서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그 각오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최정민이 개인에게도 절박감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트레이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영표 해설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후 캐스터, 한준희, 이 해설위원, 이광용 캐스터

이영표 "한국 16강 진출 가능성 낮다…기술 외 부분 강화해야"

월드컵 때만 관심 갖는 축구 문화 바꿔야 한다 지적

"박지성, 해설자로서 새로운 면모 볼 수 있을 것"

"축구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관계 없이 사실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축구스타 이영표가 24일 서울 KBS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기자회견에서 해설자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명쾌한 해설은 좋은 경기에서 나온다. 한국 선수들이 좋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활약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광용 캐스터와 호흡을 맞춘다.

이영표는 대표팀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에 대해 "김진수가 돌아오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고 본다. 5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다쳤다"라고 말했다.

대표팀은 김민재(전북), 염기훈(수원), 권창훈(디종)에 이어 이근호(강원)까지 부상으로 월드컵 진출이 무산됐다. 김진수(전북)도 월드컵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앙 수비수 장현수(FC 도쿄)에 따라 3백이나 4백을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영표는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낸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가 활약을 펼쳤을 때다. 손흥민, 기성용, 황희찬이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월드컵에서 깜짝 스타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축구 문화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이영표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 축구를 즐기고 사랑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앞뒤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축구에 흥미를 느끼도록 제도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영표는 월드컵에서 같이 뛰었던 박지성, 안정환과 해설자로서 경쟁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소감을 밝혔다.

이영표는 "안정환의 중계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박지성은 사석에서 말을 재미있게 하고 또 잘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시청자들은 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평가전 출전이 어렵다.

이영표는 "여러번 얘기했지만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25% 정도다. 물론 한국이 16강에 오르기를 100% 바라고 있다. 독일, 멕시코, 스웨덴 모두 우리보다 강팀이다. (월드컵에서) 실력으로 상대를 이긴 적은 없다. 2002, 2010년 월드컵에서도 그랬고 상대는 항상 우리보다 강했다. 우리는 기술적인 것 외에 체력 그리고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상대가 전력에서 앞선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영표는 "스웨덴은 전술면에서 4-4-2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4-4-2 전술이 완성된 팀이다. 약팀은 강팀의 전술에 맞추게 돼 있다. 스웨덴전에서 우리는 3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웨덴은 공격 전개가 빠르다. 스웨덴은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을 잡아야 한다. 0-0으로 경기가 70분까지 지속되면 스웨덴이 먼저 흔들릴 수도 있다.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버티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표는 "멕시코는 6개의 전술을 쓰지만 사용하는 빈도는 비슷하다. 멕시코는 멀티 플레이어들이 많다. 멕시코는 한국전에서 1톱이나 3톱으로 나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백을 준비해야 한다. 독일은 상대가 전력이 약할 때 3-5-2를 주로 쓴다. 반대로 강팀과의 경기에서 4백으로 나온다. 독일와의 경기는 유동적이다. 1~2차전 결과 박지성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어 영표리는 별명을 얻은 것에 대해 그는 "지난 월드컵에 몇 차례 예측했고 5~6번 연속으로 맞춘 적도 있다. 사실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멕시코는 예상보다 전력이 강하다고 느꼈다. 모든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다. 프랑스는 선수 구성도 좋지만 데샹 감독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다. 프랑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란도 약팀이지만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표는 "득점왕은 프랑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 프랑스에서는 골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프랑스에서 득점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영표는 선수시절 영리하고 민첩한 플레이로 '초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는 A매치에 127회 출전한 한국 최고의 윙백으로 손꼽힌다. PSV 아인트호벤, 토트넘, 도르트문트 등 유럽의 빅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한준희 해설위원은 "최고령 해설위원이 됐다"며 "가식이 없고 지식이 있는 해설위원으로서 시청자들이 경기를 이해하는 데 돕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4강 후보에 대해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4대 우승 후보로 꼽고 싶다.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벨기에도 4강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왕웨이중 효과'…KBO 리그 최초 대만에 생중계

대만 출신 투수 왕웨이중(NC)의 활약으로 KBO리그 경기가 대만으로 생중계된다.KBO는 스포츠 중계 마케팅사 MP&실바와 중계권 계약을 하고 24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지는 NC와 LG 경기를 시작으로 대만에서 TV와 유무선 플랫폼을 통해 KBO 리그 생중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MP&실바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각국 1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계권 계약 전문업체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WBSC 프리미어12 등 국제 야구대회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 A, 프랑스 리그 1 등 유럽 프로축구 리그와 테니스, 레이싱,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중계권자다.

KBO리그 대만 중계는 MP&실바와 계약 관계인 '스포트캐스트'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스포트캐스트는 대만에서 8개 스포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로 500만가구 이상이 시청하고 100만 유무선 플랫폼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 매체다.

매일 KBO 리그 경기 중 1경기를 케이블TV와 IPTV 채널, 자체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포함한 유무선 플랫폼을 통해 독점 생중계한다. KBO리그 하이라이트 영상과 리그 관련 영상 클립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KBO는 앞으로도 왕웨이중과 같은 아시아 지역 선수가 KBO 리그 소속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이승우, 2017 AFC 유스 플레이어상 뒤늦게 수상

소속팀 경기 일정으로 참석 못해…한국선수 4번째

국가대표팀의 막내 이승우(20·헬라스 베로나)가 2017 AFC 유스 플레이어상(유망주상)을 뒤늦게 수상했다.

이승우는 23일 오후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7 AFC 시상식에서 아시아의 20세 이하 선수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올해의 유스 플레이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소속팀 경기 일정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이날 별도로 상패를 받았다.

한국 선수가 AFC 시상식에서 남자 유스 플레이어상을 받은 것은 2002년 이천수, 2004년 박주영, 2009년 기성용에 이어 이승우가 네 번째다.

이승우는 상패를 받으면서 "늦게나마 상패를 받게돼 기쁘다. 다음에는 유스(Youth) 단어가 빠진 아시아 최고의 선수상을 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랑스오픈 불참' 정현 "빨리 회복할 것"

프랑스오픈 측 "앞으로 우리 대회 출전 기회 많이 남아" 격려

부상으로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 출전을 포기한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0위)이 하루빨리 부상을 떨쳐내겠다고 다짐했다.

정현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안타깝게도 발목 부상으로 리옹오픈, 프랑스오픈 참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현은 24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고 있는 이 대회 단식 2회전에서 질 시몽(34·프랑스·75위)과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자신을 괴롭혀 온 오른 발목 부상을 털어내지 못해 대회 참가를 포기했다.

동시에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프랑스오픈에도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까지 진출한 정현은 프랑스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단식 본선 시드를 받고 출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히면서 7월 열리는 윔블던을 노려야 할 상황이 됐다.

정현은 "올해 클레이코트 시즌에 계속 발목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MRI 촬영 결과 발목 관절에 물이 차 있었다"며 "약간의 치료와 함께 조금 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현의 글에 프랑스오픈 공식 소셜 미디어도 답글을 달았다.

프랑스오픈 측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앞으로 우리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격려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